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결정, 워싱턴과 월가로 확산
- Bloomberg: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안 내리면 경기침체 위험

### [인공지능]

- WSJ: 중국 AI 반도체 기업 비렌, 홍콩서 6억2,300만 달러 규모 IPO 계획
- WSJ: 뉴욕주, 트럼프 행정명령 무시하고 AI 안전 법안 통과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품목의 부진을 상쇄
- Bloomberg: 한국, 원화 약세에 긴장하는 이유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 finance: JP모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검토

### [미국 경제]

#### **WSJ: The Fight Over the Next Fed Chair Is Spilling Out Across D.C. and Wall Street**

####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결정, 워싱턴과 월가로 확산**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을 놓고 워싱턴과 월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백악관 경제 고문 케빈 해싯,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 케빈 워시, 그리고 현 연방준비제도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들의 특징과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인사 선택을 넘어 정치, 시장 세력 간 힘겨루기로 비쳐지고 있다.
- 월가와 정치권 인사들은 각 후보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싯은 트럼프와 가까운 점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워시는 금리 정책 등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나오는 등 신뢰도 문제가 거론된다. 반면 월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미지로 일부 경영진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이 같은 경쟁 구도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독립성을 놓고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사

#### **Bloomberg: Fed Risks Recession Without More Interest Rate Cuts, Miran Says**

####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안 내리면 경기침체 위험**

-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스티븐 미란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

책금리가 여전히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란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곧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실업률 상승 등을 감안하면 정책을 더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몇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이번 발언은 연준 내부에서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이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 [인공지능]

### WSJ :Chinese AI Chip Maker Biren Technology Plans \$623 Million Hong Kong IPO

중국 AI 반도체 기업 비렌, 홍콩서 6억2,300만 달러 규모 IPO 계획

- 중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비렌 테크놀로지(Biren Technology)가 약 6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홍콩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GPU(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의 고성능 AI 칩과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기업으로,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 비렌은 약 2억 4,770만주의 신주를 주당 홍콩달러 HK\$17~19.60 범위로 발행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2일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할 계획이다. IPO 주관사는 중국국제금융(CICC), 평안증권 홍콩과 중국은행 국제부 등으로, 투자자 수요 예측을 이미 시작했다.
- 비렌의 상장은 중국 AI 반도체 산업의 자립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AI 및 반도체 분야의 독자 생태계 구축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비렌 외에도 여러 국내 AI 칩 기업들이 IPO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사

### WSJ: New York Signs AI Safety Bill Into Law, Ignoring Trump Executive Order

뉴욕주, 트럼프 행정명령 무시하고 AI 안전 법안 통과

- 미국 뉴욕주가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RAISE Act)'을 법률로 제정했다. 이 법은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AI 기업들에게 안전 계획 공개, 안전 사고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법무부 산하 AI 안전 전담 기구도 신설된다.
- 이 법은 대형 AI 시스템 개발 기업을 규제하는 주 차원의 강력한 기준을 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AI 규제보다 신고 의무 기간을 훨씬 짧게(72시간) 정하는 등 더 엄격한 요소도 포함돼 있다.
- 특히 이번 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를 제한하려는 연방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연방 간 정책 충돌 양상을 보인다. 뉴욕주는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주 AI 안전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South Korea's Chip Sector Masks Weakness in Other Exports

####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품목의 부진을 상쇄

- 최근 발표된 12월 초 교역 통계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겉으로 보면 유지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의 강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무선통신 장비 같은 IT 제품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라는 점이 두드러졌다.
- 특히 반도체 수출은 약 42% 급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의 대부분을 견인했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 등 다른 주요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며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수출 구조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 전문가들은 반도체 실적이 아니었다면 수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와 통화, 통상 여건이 다른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Bloomberg: Why Is South Korea Worried About the Weak Won?

#### 한국, 원화 약세에 긴장하는 이유

-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 대비 크게 약세를 보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당국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연기금의 달러 매각 압박, 수출 기업의 외화 환전 독려 등 여러 조치를 시도했지만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높이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연기금의 외화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finance: JPMorgan Is Exploring Crypto Trading for Institutional Clients

#### JP모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검토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른 것으로, 기관 고객들이 현물과 파생상품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 부문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제공 여부는 고객 수요, 규제 환경, 리스크 평가 등에 달려 있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모건 스탠리 등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JP모건은 그동안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디지털 자산 토큰화 상품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며, 기관 고객에게 더 폭넓은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